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대림 제 4주일

발행 천주교 하와이 한인본당
발행인 김영근 야고보
편집 하와이 한인본당 편집부

주소 2949 Kahawai St. Honolulu, HI96822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홈페이지 <http://hi.dj catholic.or.kr>

2017년 12월 24일(나해)
제 1892호



오늘의 미사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_사무엘 하권 7,1-5.8ㄷ-12.14-16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라.

제2독서_로마서 16,25-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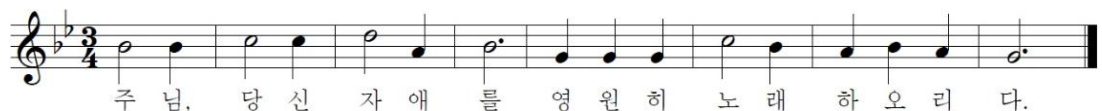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_루카 1,26-38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지금 받아들이게 하소서



김영재 콘스탄티노
규암 주임

하느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
의 범죄 후 세상 구원을 계
획하시고, 그 뜻을 예언자들
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리아
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하기 시작하신다.

왜 하느님께서서는 오랜 시
간이 흐른 후 마리아를 통하
여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을
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중, 오늘 복음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는 점이다. 처녀였기에 당
연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절이 더 이상 당연한 말
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 그런 일이 일어
나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였다. 마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
아 결혼을 할 것이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결혼을 앞
둔 여인에게 “이제 네가 잉태하여 이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는 천사의 알림은, 결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라고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알림에 “저는 남자를 알
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마리아가 천사의 알림을 결혼
후에 일어날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 전
에) 일어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다.

마리아는 “미래의 일”로 이해될 수 있는 천사의 알림

을 “지금”이라는 “현재”의 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지녔고,
그 점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였
던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계획과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닌 “훗날” 이루어질
일로 여겼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을 물었을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알려주지만(마태 2,1-12 참조),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 버린
것처럼 말이다.

만약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동방박사의 말을 “지금”
의 상황으로 이해하였다면, 그들은 동방박사 따라 길을 나섰
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마리아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수석사제, 법학
자들처럼 천사의 알림을 “지금”이 아닌 결혼 후에 이루어질
일로 여겼다면, 아니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구세주의 탄생
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구약의 많은 신앙인들을 제쳐두고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
는 신앙. 미래의 일로 여기며 천천히 반응하지 않고 오늘의
일로 받아들이며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신앙.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이고 특별함이였다.

오늘은 대림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공교롭게도 오늘밤은
성탄성야이다. 대림시기를 마감하고 성탄을 맞이하며 “오
늘”, “지금”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 그리고 마리아의
특별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은총을 조심스레 청해 본다.





아름다운 지각



매년 성탄절이 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 세 번씩이나 중요한 타이밍에 일이 꼬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루비와 청옥, 진주를 예물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 명의 동방박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루비를 팔아 그를 돕다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해 아기 예수를 뵈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어긋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긋남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이집트를 향해 가던 길에서 발생합니다. 군인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갓난아기를 발견하곤 청옥을 건네주고 아기를 구하느라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33년의 세월이 흐른 후 골고타 언덕길에서 예수님 뵈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에도 일이 어긋나고 맙니다. 예수님을 뵈기 직전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 가게 된 소녀를 발견하곤 마지막 예물이었던 진주마저 팔아 그 소녀를 구하느라 시간을 지체한 것입니다.

마흔 살의 나이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일흔 살이 넘어 드디어 예수님을 뵈게 된 그 순간마저도,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다가 번번이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된 알타반...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세 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약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나다.”

평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바쁘다는 이유로 종종 지각하기 마련인 우리들. 하지만, 그 지각의 이유가 알타반의 경우와 같다면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를 반기시지는 않을까요?

번번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지각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 자리하고 계셨던 알타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뵈러 가는 발걸음이 더없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이중무 바오로/ 극작가(건양대학교 교수)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946-278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아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 차 그레고리오 / 226-3344	MYCOMP 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	최 니콜 부동산 732-5004,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65세 이상 건강보험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203-7038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 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무료상담 백승희(아나스타시아) / 931-9249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빈티지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최현희(보나) 부동산 부동산매매/상담 및 문의를 환영합니다 636-5217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주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manoa@hotmail.com 한인본당사무실(988-6047)

성탄 송년 미사 안내

※성탄과 연말 연시를 미사와 친교로 함께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12월 24일	아침 6시 30분 대림 제4주 새벽미사
	오전 11시 30분 대림 제4주 교중미사
	오후 6시 30분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7시 50분 ~ 8시 30분 식사 8시 30분 ~ 9시 50분 친교 행사 (성탄 파티)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시 50분 식사
12월 31일	밤 9시 송년 미사(솔렉) 10시 간식 및 친교 행사 11시 55분 새해 맞이 카운트 다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국악 미사를 할 예정이오니, 국악 미사곡 악보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과 부활절 밤 미사 등에는 운전 봉사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어르신들의 자녀, 가족들께서 직접 픽업하고 모셔다 드리는 방법과 구역/반 별로 카풀해서 미사 및 행사를 빛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성경 통독 안내 (준비물: 새번역 성경)

시간 : 11시 5분 ~ 11시 25분

오늘의 본문 : 창세기 11장-14장

통독 방법: 성경 본문을 펴시고 오디오 성경 속도에 맞춰 눈으로, 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행사 도네이션에 감사드립니다.

- 알라모아나 구역
- 칼라카와 북 구역
- 마노아/마키키 구역
- 김 은주 카타리나
- 박 강혜 나타리아
- 김 송죽 안나
- 홍 성권 니폴라우스

운전 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담당자 : 홍 프란치스코(836-5887)

도네이션

김용태 요셉형제님께서 한글학교를 위해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12월 16, 17일) 우리들의 정성(\$ 10,447)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 3,654	\$ 4,540	\$ 175

*헌 금 : 토요 \$ 654 아침 \$ 640

교중 \$ 2,064 청년 \$ 296

*교무금 : 토요 \$ 1,000 아침 \$ 1,480 교중 \$ 2,060

*2차 헌금 : 청년 \$ 175

*솔렉 미사책 \$ 88 *감사헌금 \$ 570

*성소후원금 \$ 1,100 *성물 판매 \$ 290

*발전 기금 \$ 30

미사 시간 안내

마노아	•주일미사 : 오전 6:30, 11:30(교중 미사), 오후 3:00(청소년 미사)
	•평일미사 : 화요일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성 시간 : 첫 화요일 7시 미사 중
솔 렉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주임신부 : 김영근(야고보) [사제관 (808) 892-1480]

- 사 무 실 : 전화. (808) 988-9678 팩스. (808) 988-6047
-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예비자 교리 :

매주일 10시 강당 회의실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성당
- 솔렉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강당(솔렉성당 지하)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는 연령회(회장 박춘경 데레사 224-3335)로 연락주십시오.